



미 증시, 연준 위원 완화적 발언 등으로 낙폭 축소

미국 증시 리뷰

5 일(목)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실업지표 호조 등에 따른 금리 반등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 속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의 제한 등을 시사한 연준 위원의 완화적 발언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03%, S&P500 -0.13%, 나스닥 -0.12%). 업종별로는 부동산(+0.7%), 헬스케어(+0.5%), 금융(+0.4%) 등이 강세, 경기소비재(-2.1%), 소재(-1.3%), 산업재(-0.6%)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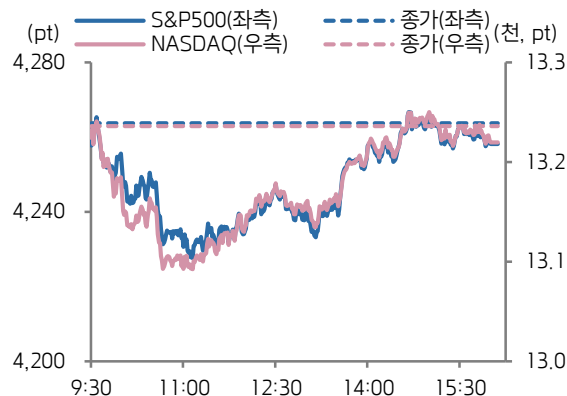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제약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에,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또 과거 90 일간 금융 여건은 상당히 긴축된 만큼, 추가 행동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7 만건으로 전주(20.6 만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컨센(21.0 만건)은 상회. 9 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계획은 4.7 만명으로 전월(7.5 만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1~9 월 누적 감원 계획은 60.4 만명(YoY 198%)으로 2020 년 코로나 팬데믹(208.2 만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 집계 측은 기업들이 4 분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8월 무역수지 적자는 583억달러로 전월(647억달러) 및 컨센(623억달러)을 모두 하회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원유, 컴퓨터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1.6%YoY)이 증가한 반면, 휴대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0.7%)이 감소했다는 점이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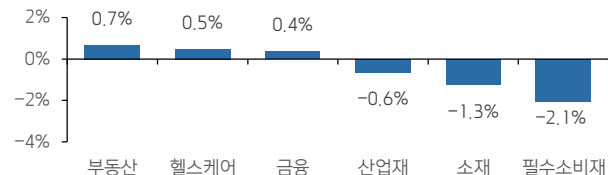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후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책무이자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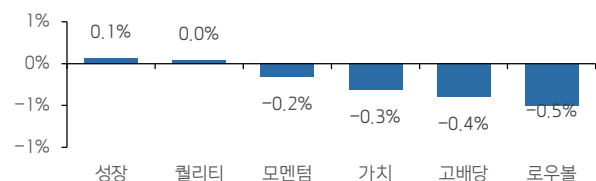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03.60	-0.09%	USD/KRW	1,350.51	-0.96%
코스피 200	318.58	-0.27%	달러 지수	106.35	-0.42%
코스닥	801.02	-0.79%	EUR/USD	1.06	+0%
코스닥 150	1,261.63	-0.38%	USD/CNH	7.31	-0.02%
S&P500	4,258.19	-0.13%	USD/JPY	148.47	-0.03%
NASDAQ	13,219.83	-0.12%	채권시장		
다우	33,119.57	-0.03%	국고채 3년	4.085	-5.5bp
VIX	18.49	-0.48%	국고채 10년	4.335	-5bp
러셀 2000	1,731.51	+0.14%	미국 국채 2년	5.018	-3.4bp
필라. 반도체	3,406.98	-0.52%	미국 국채 10년	4.719	-1.4bp
다우 운송	14,678.20	-0.32%	미국 국채 30년	4.890	+3.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099.81	+0%	WTI	82.31	-2.27%
MSCI 전세계 지수	647.59	+0.2%	브렌트유	84.07	-2.03%
MSCI DM 지수	2,816.43	+0.2%	금	1831.8	-0.16%
MSCI EM 지수	930.23	+0.26%	은	21.02	-0.6%
MSCI 한국 ETF	57.98	+0.4%	구리	355.2	-1.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두산로보틱스 상장 및 로봇관련 모멘텀 소멸로 관련주 변동성 확대 2. 밸류에이션 상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3. 다음주 월요일 한국, 미국 휴장을 앞두고 고용보고서 경계심리 상존할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증시 조정 요인은 1) 타이트한 고용 지속 및 소매판매 서프라이즈로 인한 미국 경기 재가속, 2) 정부 섣다운 우려. 이 때문에 장기금리가 급등했지만 최근 채권 매도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고용의 경우 JOLT 구인이직 건수는 예상치를 큰폭으로 상회했지만 후행지표이며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 비율은 7 월에 이어 1.5 명 유지, 채용, 자발적 퇴직자수 역시 전월과 유사. ADP 고용 결과 역시 서비스 부문 외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이 대부분 감소. 선행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7 만건(예상 21.0 만건, 전주 20.4 만건)으로 예상치 하회하기는 했지만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평가에 지표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

지난달 소매판매는 MOM 0.6% 증가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및 가스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 0.2% 상승에 그침. 헤드라인 지표의 서프라이즈는 결국 변동성이 큰 휘발유 가격의 급등에 기인. 11 월까지 정부 섣다운 이슈가 연장되고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역시 채권 매도세가 심화된 요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 개월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당시 이미 거버넌스 문제가 반영돼 신용등급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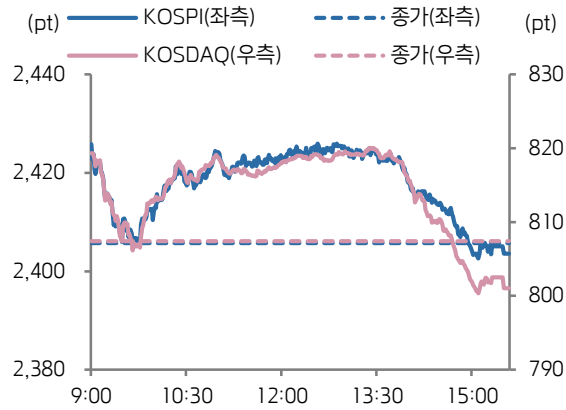
소매판매 데이터와 정치 및 재정정책 이슈는 추가 데이터 확인이 필요. 가장 먼저 금일 고용보고서에서 실업자수 예상치 하회, 주간 평균근로시간 하락, 임금상승률 추가 둔화 등 노동시장의 완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장기금리 상승세는 진정될 수 있을 것.

5 일(목) 국내증시는 유가 및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현선물 매도,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반대매매 추정 물량 출회 지속되며 하락 전환 마감. (KOSPI -0.09%, KOSDAQ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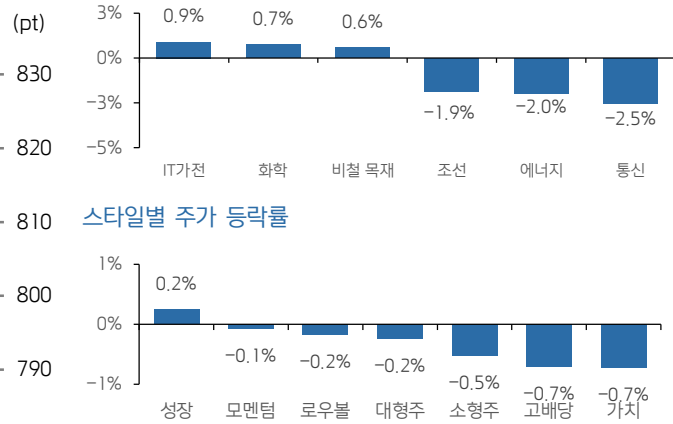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증시의 낙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월요일(9 일) 한글날 휴장으로 인해, 금일 밤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6 거래일 만에 개장하는 중국증시 약세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닥은 1.5%대까지 상승했으나 2 차전지주 상승폭 반납, 두산로보틱스 상장 및 로봇 관련주 변동성 확대에 하락 전환. 두산로보틱스는 공모가(2 만 6000 원) 대비 97.69% 상승, 공모가 대비 400% 상승이라는 시장 기대에는 못미쳤지만 시총 3.3 조원 상회하며 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2.7 조원을 넘어섬. 모멘텀 소멸로 인해 레인보우로보틱스(-8.39%), 뉴로메카(-12.13%), 에스피지(-11.49%), 로보티즈(-9.63%) 등 급락. 금일에는 전일 추가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연말까지는 고금리로 인한 성장주 불리, 양도세 회피 이슈 지속되며 테마 및 개인 수급이 지수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태임과 동시에 9 월말 이후 20 조원을 돌파했던 신용잔고 역시 낮아지며 수급 부담이 낮아진 점은 대형주, 특히 반도체주에 더 유리한 환경. 다음주 11 일 삼성전자 잠정실적에서 반도체 업황 저점 확인 이후 외국인 매수세 추가 유입 가능. 또한 다음주 중국 국경절 연휴 판매 데이터 및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중단 및 투자심리 개선 이루어질 것. 9 월달에 상승폭을 반납한 중국 소비관련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